

글쓰기 가이드북 4

생각부터 완성까지 전략적인 글쓰기 연습





글쓰기 가이드북 4

생각부터 완성까지
전략적인 글쓰기 연습

Contents



글쓰기 가이드북 4

생각부터 완성까지 전략적인 글쓰기 연습

1. 글쓰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3
2. 전략적인 글쓰기 준비	
1) 내용 생성하기	8
2) 자료 수집	11
3) 개요 작성하기	12
3. 글쓰기 전략	
1) 문장	18
2) 문단	21
4. 전략적인 글쓰기 정리	26
연습하기	28

1. 글쓰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은 더 그렇다. 완성된 문장을 쓰거나 완결된 글을 읽는 건 일부러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겨질 정도이다.

메신저에 “ㄱㄱ”을 쓰면 “ㅇㅇ” 또는 “ㄴㄴ”라는 답을 받는다. 어색하지 않다. “계명아, 밥을 먹으러 갈래?”처럼 문장부호까지 완전히 쓴 문장을 보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

그래서 보고서나 자기소개서와 같이 공식적인 글쓰기뿐만 아니라 일기를 작성하는 일까지 두려워진다. 새삼 문법을 의식하고 문장 간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강 의미가 통하니까 넘어가자는 게 가능하다면 또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글쓰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게 된다.

모든 글은 표현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인 셈이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앞뒤 상관관계를 따지는 일을 해내야만 한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대충 알아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한 걸음 떼보자. 문장 하나를 쓰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문단을 만드는 일을 해보자.

글 쓸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떠올려보자. 무엇부터인가. 주제 설정? 자료 수집? 무조건 쓰기?

다수가 잘못하는 일은 준비 없이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작정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번쩍하고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한 번에 완성도 높은 글이 쓰이길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

능성이 크다. 계획 없이 시작하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글은 산만해지기 마련이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쓰기 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쓰는 행위에 돌입한다. 글을 쓰면서 무얼 쓸지 고민하다 보니 문체가 통일되지 않거나 주제가 흐트러진다. 소재가 빈약하거나 글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쓰기 전 단계’를 새삼스레 인지한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연을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고 한 줄 감상평을 남길 때, 메모같이 완성되지 않은 글로 일상을 쓸 때도 쓰기 전 단계를 거친다. 나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주인공 행동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떠올리거나 내가 겪은 일에 대한 감정이나 대략적인 사건 순서를 정리하는 것까지. 이처럼 쓰기 전 단계에서 해내야 하는 일인 주제 선정, 소재 확인을 평소에 하고 있다. 없던 인지과정이 추가된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자연스럽게 해내던 일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원래 쓰던 습관대로 막연한 생각을 붙들고 글쓰기를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작은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주제를 정하고 그걸 뒷받침할 소재를 모아야 한다. 전개 방향을 정하고 각 문단을 책임질 주제문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은 단 번의 글쓰기로 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생각의

열개를 파악하고 전개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만 글을 완성했을 때 초기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는 글을 쓰는 과정의 길잡이가 되면서 글을 쓴 후 점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글쓰기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적용과 활용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낯선 작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글쓰기 준비 단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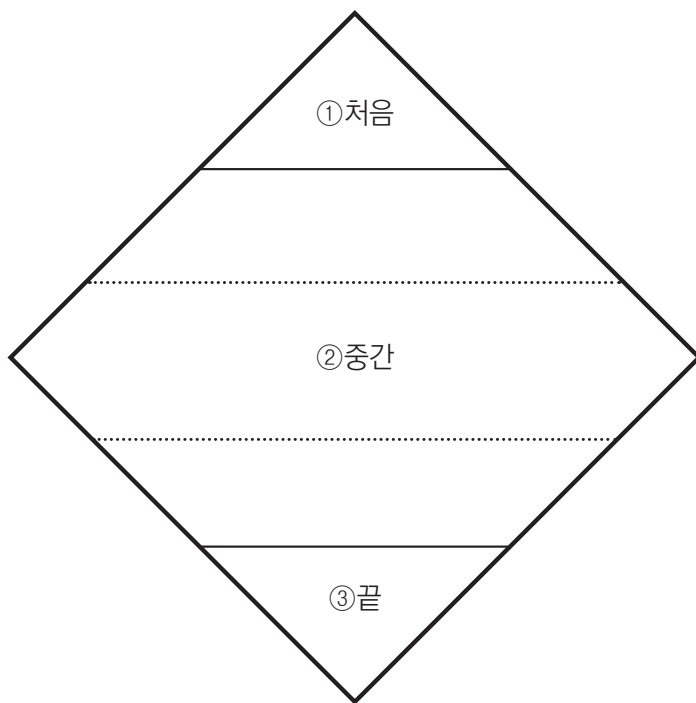


tip! 어떤 글이든 주제는 하나이다.

2. 전략적인 글쓰기 준비

글쓰기 준비에 앞서 완성된 글의 형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완성된 글의 형식과 비율을 익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글은 ‘처음-중간-끝’으로 구성된다. 500자 정도의 짧은 글이어도 그렇다. 몇 백 페이지 분량의 글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과 끝의 분량은 비슷하고 중간 부분의 분량이 큰 데에 기인한 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① 처음은 글의 입구와 같다. 글의 성격에 따라 문제 제기, 흥미 유발 등의 역할을 한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 무작정 글을 쓰고자 하는 이에게는 ‘첫 문장부터 안 써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쉽지 않다.

시작, 그 자체의 성격을 떠올려보자.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거워서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글을 쓰게 되면 본론이 나오기 전에 독자가 지친다. 글 쓴이의 생각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화제를 던지고, 이후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겠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계획 없이 쓸 경우, 중언부언하면서 도입이 너무 길어지기도 한다.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쓰게 되면 퇴고 시 이를 확인하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중간은 주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양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는 소재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일지라도 계획 없이 글을 쓰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다. 생각은 항상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가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글을 쓰다 보면 바로 앞에 기록한 문장에만 기대어서 글을 전개하게 된다. 그럴 경우, 주제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전체에 오류가 발생하여 설득력이 떨어지는 글을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글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면서 전개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처음과 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작성하는 만큼 주제와의 관련

성을 고민하면서 작성해야 한다. 소주제를 잘 배치하였는지, 위계관계가 적절한지, 문단 간 관련성 등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③ 끝은 글의 출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마무리를 위해 위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거나 주제를 전개하면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와 같이 마감이 있는 글을 작성할 때 끝을 빈약하게 작성하는 이들이 있다. 글의 호흡이 뚝 끊기듯 급작스러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작성자의 집중력이 떨어져서이다.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드러난다. 마무리까지 완급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다.



tip! 처음-중간-끝의 이상적인 비율은 1:3:1이다.

1) 내용 생성하기

글쓰기 이전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할 것은 '내용 생성'이다.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매핑을 한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주로 자유연상법이라 칭해진다. 주제와 관련된 것을 한계 없이 펼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무조건 생각하자고 해서 글감이 샘 솟지는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발상의 양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목표나 키워드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가주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책을 읽었을 때 인상적인 부분’, ‘교환학생 신청할 때 필요한 요소’ 등이 그것이다. 임시 주제를 정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보자.

브레인스토밍 예시

나의 관심사: 뮤지컬 관람하기, 소설 읽기, 친구 만나기, 자전거 타기, 커피 마시기, 치맥, 군것질하기, 싫지만 자격증 공부, 스테디에서 만난 친구, 동아리 활동, 노래 부르기, 혼자 코인 노래방 가기, 단체카톡은 별로다, 통화보다는 카톡,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 산책, 밤, 달, 피아노 연주, 힙합, 웹툰, 학과 동기, 야구, 꽃

위의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임의로 글의 정점을 상정하고 진행하였으니 끝까지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글쓰기 혹은 이전 단계에서 주제를 바꾸고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글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연습하기

나의 관심사 :

마인드매핑(mind-mapping)은 자유롭게 작성한 글감을 체계화하는 활동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성된 내용을 동일한 종류끼리 나누면서 정리한다. 주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탈락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일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드러나면서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

마인드매핑 예시

- ① 뮤지컬 관람하기, 소설 읽기, 친구 만나기, 자전거 타기, 커피 마시기, 노래 부르기, 혼자 코인 노래방 가기, 군것질하기, 산책, 피아노 연주
- ② 스터디에서 만난 친구, 동아리 활동,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 학과 동기, 야구
- ③ 싫지만 자격증 공부, 단체카톡은 별로다
- ④ 치맥, 통화보다는 카톡, 밤, 달, 힙합, 웹툰, 꽃

앞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으로 마인드매핑을 하였다. 이들의 내적 연결고리는 글쓴이만 알 수 있다. 이 분류 작업을 통해 필요한 것과 아닌 것, 확장할 것 등을 확인하자. 이들은 후에 주제문의 뼈대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인드매핑 연습하기

- ①
- ②
- ③
- ④
-
-

보고서와 같이 목적이 분명할 글을 작성할 경우, 주제나 방법 등 접근 방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한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주로 내용 생성하기 과정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된 주제를 얼마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글의 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내용 생성하기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좋다. 이를 통해 글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2) 자료 수집

내용 생성하기를 통해 글의 방향이 정해졌을지라도 아직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 글감이 정해졌을 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글의 종류에 따라 자료 수집의 양과 방법이 정해진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인쇄 매체를 통해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전문 정보를 얻기 쉽고 동시에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을 찾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시청각 매체로 정보 수집의 방식이 확대되었다. 정보 검색이 수월하다는 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의외로 내가 원하는 글감으로 딱 맞는 정보를 바로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출처를 재확인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료 수집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수시로 해야 한다. 독후감을 쓰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가령 『완전한 행복』을 읽었으니 다시 이 책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무조건 기억에 기대어 글을 쓰자며 불완전한 메모를 더듬기만 할 필요도 없다. 이 텍스트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책을 펼치고 자료 조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된다.

자료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을 모두 활용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소재가 늘어나면서 산만해지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tip!

자료 수집의 목표는 많은 양의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 수집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3) 개요 작성하기

글은 한 곳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모든 문장이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다. 긴 글일수록 가시화된 계획표가 없으면 처음 생각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글을 쓰는 일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다. 글쓰기 과

정은 언제나 단계적 이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주제를 바꾸면 내용 생성부터 이에 따른 자료 수집을 다시 하면 된다. 글을 쓰다가 내용 확장이 되지 않으면 자료를 더 수집해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이런 활동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개요 작성이 필요하다.

개요는 크게 문장식 개요와 목차식 개요로 나뉜다. 말 그대로 전자는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꼭 무엇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자.

문장식 개요	목차식 개요
1.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꽃이다.	1.가장 좋아하는 것: 꽃



tip!

문장형 개요를 활용하면 개요 자체를 주제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부터 완결된 글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 개요를 짜보도록 하자. 다음은 개요 작성을 위한 예시이다. 이를 보면서 문단 나누기의 기준으로 삼거나 목차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1. 처음
 2. 중간
 - 2.1. 소주제1
 - 2.2. 소주제2
 - 2.3. 소주제3
 3. 끝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위와 같다. 이제 구체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자. 개요의 내용은 글의 종류, 전개 방식 등에 따라 바뀐다.

같은 장르라고 해서 개요 역시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 설명문을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논리 전개 방식에 따라 개요 작성이 달리 된다. 분류, 분석, 비교 및 대조 등 글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따라 각 문단의 주제와 구조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다음 개요를 살펴보자. 소재는 동일하다. 꽃을 설명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개요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	분석
〈꽃의 구성 요소〉 1. 처음 2. 꽃의 구조 2.1. 꽃받침 2.2. 꽃잎 2.3. 암술과 수술 3. 끝	〈꽃의 기능〉 1. 처음 2. 메시지 전달 2.1. 긍정적1: 축하 2.2. 긍정적2: 사랑 2.3. 부정적1: 2.4. 부정적2: 3. 끝

이는 돌아가 자료 수집의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글쓰기의 단계는 편의상 ‘글쓰기 전-글쓰기-글쓰기 후’로 순서가 나뉘어 있을 뿐이다.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언제든지 단계를 반복하면서 글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글이란 기본 구조는 같지만 종류와 방향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논증문 역시 구성법에 따라 개요 작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처음
 - 1.1. 현실소개
 - 1.2. 대주제 (입론)
2. 중간
 - 2.1. 소주제1 (주장1과 근거1)
 - 2.2. 소주제2 (주장2와 근거2)
 - 2.3. 소주제3 (주장3과 근거3)
3. 마무리

이를 변주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할 수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자.

1. 처음
 - 1.1. 현실소개
 - 1.2. 대주제 (입론)
2. 중간
 - 2.1. 소주제1 (주장1과 근거1)
 - 2.2. 소주제2 (반박1과 재반박1)
 - 2.3. 소주제3 (주장2와 근거2)
3. 마무리

위의 개요는 2.2.가 달리 구성되었다. 글쓴이가 예상 독자를 상정하고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예상한 것이다. 이를 재반박하는 전개 방식을 택함으로써 글의 논리를 단단하게 채웠다.

타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글의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였기에 개요 작성을 구체화할 때 다른 구성을 하였다. 논증문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한 글이다. 이를 위해 전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서술하는 것처럼 글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요 작성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행위이다. 또한 듣는 사람, 즉 독자를 향한 말이기도 하다. 이를 기억한다면 쉽게 개요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상문과 관련한 개요를 작성해보자.

1. 처음
 - 1.1. 작품을 읽게 된 배경
 - 1.2. 글쓴이의 관점
2. 중간
 - 2.1. 줄거리
 - 2.2. 글쓴이의 관점에 따른 해석1
 - 2.3. 글쓴이의 관점에 따른 해석2
3. 전체 느낌 및 마무리

감상문의 개요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각 문단 혹은 소주제별 비율 조정이다. 개요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2.1.줄거리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이것이 2.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다. 좋지 않은 선택이다.

감상문의 목적을 분명히 떠올린다면 어렵지 않다. 글쓴이가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감상(해석)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의 관점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요 내용을 단순 기술하는 것은 감상이 아니다.

요약 역시 자신이 어떻게 텍스트를 읽었는지 확인 가능한 지표가 된다. 글쓴이가 제시한 줄거리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인과관계와 등장인물의 성격, 플롯 등을 확인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를 읽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자신의 해석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다음 문단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자. 굳이 작가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필요가 없다. 내가 읽은 작가를,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되지 않는 전개가 있다면 왜, 질문해보고 등장인물의 선택을 의심해보자. 지나친 비약은 문제가 되지만 원텍스트에 근거한 나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독후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tip!

만약 줄거리를 너무 많이 썼다면 각 문단을 살피면서 줄이는 것이 좋겠다.

3. 글쓰기 전략

본격적으로 글을 쓸 차례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은 글을 써서는 안 된다. 글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내용을 잘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힘들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처럼 단순한 규칙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1) 문장

좋은 문장은 무엇일까. 잘 읽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문장을 써야 한다.

지금부터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점검하자. 또한, 무엇에 주의해야 완성도 높은 문장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문장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올해에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문장에 ‘-것’이 세 번이나 사용되었다. 읽기에 어색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수정하기

▶ 접속사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와 함께 뮤지컬 〈헤드윅〉을 보았다. 그리고 파스타를 먹었다. 그리고는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했다.

글을 쓸 때 접속사는 필요하다. 매번 그렇지는 않다. 접속사를 너무 많이 쓰면 글이 지저분해 보인다. 필요 없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접속사를 사용하면 앞뒤 문장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글쓰기에 자신 없는 사람이 이를 많이 활용한다. 주의하길 바란다.

 수정하기

▶ 주어-술어의 호응이 정확해야 한다.

놀라운 점은 오늘날 인간관계는 때로 서로에 대한 호감보다 자신이 얻을 이익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문장에는 주어와 술어가 있다. 이들은 반드시 호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위 문장의 주어는 “놀라운 점은”이다. 서술어를 찾아보자. 맨 뒤에 있는 “형성된다”이다. 이는 “인간관계는”에 대응하는 술어이다. 즉, 전체 문장의 주어에 대응하는 술어가 없다는 말이다. “놀라운 점은”에 맞는 서술어를 작성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자.

 수정하기

▶ 뜻이 중복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다.

“좋은”과 “호평”을 같이 쓰면서 ‘좋다’는 의미가 중복되었다. 둘 중 하나만 써도 뜻이 전달된다. 어느 쪽이든 하나를 생략해서 문장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자.

형태가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 시각적인 확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금방 발견하고 수정하기 쉽다. 하지만 뜻이 중복될 경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살피고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 수정하기

▶ 지나치게 긴 문장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중실은 머슴살이를 하다가 주인 영감의 첩에게 손을 댔다는 누명을 쓰고 하직하여 향한 곳이 산인데, 이곳은 제일 친한 곳이기도 했지만,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서인데 이때의 산은 마을과 사람과는 인연이 먼 산협으로, 산은 현실에서 유리된 공간이며 현실에서 배반당한 중실이 찾기에 알맞은 곳이다.

위의 문장은 한 번에 읽히지 않는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주어-술어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주의하자. 지나치게 긴 문장은 읽는 사람에게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서 비문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을 담는다는 기준으로 수정해보자.

☑ 수정하기



tip!

‘-것 같다’는 서술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기술하면서 이와 같이 쓰는 것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문단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여 완성도 높은 문장을 썼다면 이제 적절한 문단을 작성하는 데에 집중해보자.

문단이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인 것이다. 단순히 문장 여러 개가 형식적으로 하나이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핵심 문장과 이를 뒷받침할 몇 개의 보조문장을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먼저 문단의 구성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문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두괄식’, ‘미괄식’ 등으로 불린다. 전자는 주제문이 문단의 맨 앞에 있고 보조문장들이 뒤에 배치되는 것이고 후자는 반대로 주제문이 뒤에 보조문장들이 그 앞에 있다.

두괄식
<p>효과적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이 필요하다. 얼마 전, 죽은 고래가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그 뱃속에 비닐봉지가 가득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어 갈매기 다리에 마스크 줄이 엉켜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다수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p>
미괄식
<p>얼마 전, 죽은 고래가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그 뱃속에 비닐봉지가 가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어 갈매기 다리에 마스크 줄이 엉켜 있는 모습이 공유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이 시급하다.</p>



tip!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 문단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통일성과 완결성으로 이야기되는 이것들은 문단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 하나의 생각으로 한 문단이 이뤄져야 한다.

문단은 그 자체로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모이는 문장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한 개의 주제문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문단의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친구를 따라 시작한 것이었는데 점점 열심히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행사 진행 보조를 했는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행사를 위해 물품을 준비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도 즐거웠다. 안내할 때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준비한 대로 할 수 있어서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뭔가 부듯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앉자마자 졸았다.

위 예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다. 문단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이라는 한정된 사건을 활용한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느낀 감정이 뒤섞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글쓴이의 감정 두 가지—부듯함, 힘들—을 주제문으로 하여 사건과 감정을 분류하여 문단 나누기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통해 통일성 있는 문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문단은 하나의 내용으로 끝맺음을 해야 한다.

또한,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단 그 자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이뤄지면서 그것을 끝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경청하는 자세로 팀워크를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별발표를 할 때였습니다. 팀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조원이 화를 내면서 팀원 간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두 명의 팀원을 중재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말고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고민을 자주 듣고 공감해줘서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한 개의 문단은 글의 일부이다. 그래서 완결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문단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야 한다. 각 문단의 완결성이 모여 하나의 글이 완성되어야 한다.

‘잘 듣는다’는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단이다. 조별과제를 할 때의 이야기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친구와의 고민 상담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다.

이는 많은 글쓰기에서 보이는 오류이다. 욕심을 내어 하나의 문단으로 완성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개로 묶는 것이다. 소재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풍성한 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마지막 문장을 기술함으로써 문단의 완결성은 떨어진다.

완결성을 지닌 문단을 쓰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거나 문단을 나누어 새 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문단의 완결성을 확보한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 되겠다.

문단 나누기를 낯설어하는 이가 있다.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주제의 경계를 어디에서 잡아야 하는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을 완성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단 나누기를 안 하기도 한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여러 개의 소주제로 세분화된다. 또한, 소주제는 소재와 함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미리 작성한 개요를 보면서 문단 나누기를 해보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서로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기 중에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아졌다. 학기말쯤엔 기말고사 준비와 보고서 제출을 하느라 연락조차 뜸했다. 그러다가 “고기”라고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서 저녁

을 같이 먹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설렘. 그가 어디쯤 도착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연락을 했다. 다리가 아프니 서둘러라고 답을 했다. 그가 업어주겠다길래 계좌번호를 찍겠다고 했다. 딱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맞은편 횡단보도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반가웠다. 바로 식당에 갔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밀린 이야기를 했다. 조별 과제 하면서 힘들었던 점, 기말고사 때 마신 커피의 양, 방학 때 할 일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tip! 문단 나누기를 할 때 들여쓰기를 하자.

4. 전략적인 글쓰기 정리

초고를 쓰고 글쓰기의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 번만에 완료한 글의 완성도가 높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꼼꼼히 개요를 짜서 글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글쓰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퇴고, 즉 고쳐쓰기는 여러 번 이루어질수록 좋다. 몇 번 고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식의 답은 없다. 반복해서 고친 후에 글을 보면 또 수정할 곳을 발견하게 되니 말이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살펴야 한다. 단, 퇴고 역시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작은 부분에 매여있지 않도록 전체에서 부분으로 좁혀가는 순서를 밟는 것이 좋겠다.

퇴고할 때 주의해서 살펴볼 것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꼭 모든 항목을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 내용과 형식을 고루 확인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퇴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tip!

초고를 완성하고 바로 고쳐쓰기를 하기보다 몇십 분이라도 좋으니 물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주위 환기가 되어 오류를 찾아내기 쉽다.

- 주제가 분명한가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 추가로 넣을 내용이 있는가
- 중복되는 내용은 있는가
- 문단 간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 문장 간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문체를 통일했는가
- 잘못 쓴 문장은 없는가
- 어문 규정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였는가
- 오타자는 없는가
- 참고문헌을 표기했는가
- 인용 및 각주 표기를 정확히 하였는가



tip!

글 쓰는 데에 인용한 모든 자료를 참고문헌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를 제시한다.

:) 연습하기

주제를 정하고 개요를 작성해봅시다.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spiral binding at the top, intended for writing a topic and outline. The box is empty and has a light gray border.

:) 연습하기

‘글쓰기 전-글 쓴 후’ 단계를 유념하면서 글을 한 편 완성해봅시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spiral binding at the top, intended for writing practice. The box is light gray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text.

교수학습개발센터

표현력클리닉 프로그램

표현력클리닉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합니다.

일대일 글쓰기 첨삭지도

국어와 영어의 일대일 맞춤형 글쓰기 첨삭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한국어 글쓰기 컨설팅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를 전문가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한국어 스피치 컨설팅

전문가와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스피치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영어 컨설팅

개별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실력 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토익 시험 준비부터 영어 발표까지 다양한 영어 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컨설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대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취월장 글쓰기 특강

글쓰기에 관한 관심 고양 및 완성도 높은 글쓰기를 장려하고자 교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청산유수 말하기 특강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및 전문성을 부각하고자 교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영어 글쓰기/회화 워크숍

외국어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면으로 운영하는 워크숍

영어 온라인 특강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상시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학습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길잡이 교육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방법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는 온라인 특강

표현력 무한도전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계발하고 우수 사례를 대외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열별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계열별로 보고서 쓰기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보고서 쓰기의 향상을 길러주기 위해 팀별 워크숍과 개별 컨설팅 두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학과별 의사소통 동아리 교육

학과별 의사소통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헬린지 공모전

기초 학습역량과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한국어 글쓰기·말하기, 영어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책자 제공

효과적인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

글쓰기 가이드북 4

생각부터 완성까지 전략적인 글쓰기 연습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인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기획	사용진(교수학습개발센터장)
검수	임태성(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집필진	박찬미, 고도연, 김철균(표현력 클리닉 튜터)
편집	이민지(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발행처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 신관 3층
문의	kctl@kmu.ac.kr / 053) 580-8884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저작권은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습니다.

[비 매 품]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글쓰기 가이드북 4

생각부터 완성까지 전략적인 글쓰기 연습



계명대학교 | **교수학습개발센터**
KEIMYUNG UNIVERSITY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 신관 3층
TEL (053) 580-6492~3 FAX (053) 715-2022 E-mail kctl@kmu.ac.kr